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2001)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2, No. 2. 2001

주요용어 : TV 뉴스, 건강관련 정보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건강성과 해독성

김 신 정* · 이 정 은** · 김 신 동***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해 1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TV 건강정보 중 16.8% 몸에 해롭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Huh, 1999).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건강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텔레비전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이제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떤 정보는 흘려 들어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한의학회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TV에 나오는 건강 정보는 가려서 믿어야 한다. KBS1,2와 MBC, SBS 등 공중파 TV 4개 채널이 96~97년 방영한 건강정보프로그램 191편 가운데 32편(16.8%)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정보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편 중 12편(6.3%)은 아예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는 지난 해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건강보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산하 17개 학회가 공중파 TV 건강정보 프로의 과학적 건전성과 유해성 등을 평가 조사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몇 가지 잘못된 건강관련 보도의 사례를 통해 그릇된 건강관련 정보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보이며, 둘째는 부분적 정보가 마치 전체인양 둔갑한 경우, 그리고 셋째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의학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TV의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강관련 정보는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며 "매체간의 경쟁이 지나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방영되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Korean Academy of Medicine, 1999).

대한의학회의 지적이나 혹은 'TV에 나오는 건강관련 정보는 가려서 믿어야 한다'는 신문기사의 경고는 사실상 일반 시청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건강관련 정보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시청자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달리 말하면 한 번 잘 못 만들어진 건강 정보는 사실상 수정될 기회 없이 곧바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그 결과 몸에 유익하다는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건강 정보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정보는 개인적 및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게 마련이지만,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건강 정보의 16% 이상이 해로운 정보라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누군가 텔레비전은 '눈으로 씹는 껌'이라는 말로 텔레비전의 경박성과 무책임함을 질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좋든 싫든 텔레비전은 이미 현대인의 일상에 너무나 깊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 침투해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일과를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방송에 자신의 인식과 판단을 맡겨 버린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연구결과도 줄을 잇고 있다(Yoo, 1996). 텔레비전은 신속하게 영상 이미지를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강력한 기억을 남긴다. 이러한 매체 속성으로 인해 방송의 내용 중 일반적 지식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의존도와 그에 수반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건강관련 정보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 우리의 삶에 일으킨 다양한 변화, 특히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텔레비전은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내용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우리의 행동, 정서, 사고에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기도 하며 또 현실이기도 하다(Lee, 1992). 우리 나라의 경우, 텔레비전의 보급과 이용행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이용과 관련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Kim et al., 1996). 더욱이 대부분의 조사와 연구가 가정내의 시청률이나 프로그램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시장조사로서의 성격을 띠어 왔고 실제로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와 강도 등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드문 실정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시간과 보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이나 정보를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하여 입수하는가 하는 조사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에 있어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가 39.9%, 쇼/오락 21.4%, 영화 18.5%, 코미디 18.2%, 스포츠 13.5%, 좌담/토론 6.3%, 기타 18.9%인데 비해 뉴스는 61.1%로 조사되었다. 일반 국민들의 텔레비전 시청 동기를 알아본 결과,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등의 정보추구를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가 34.0%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매체로서 텔레비전은 일반인들에게 높은 신뢰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는 것이 바로 사실로 인식될 만큼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짐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건강관련 정보는 더 이상 건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적 관심 대상이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들에게 신문, 방송, 책 등을 통하여 건강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건강관련 정보 전달에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텔레비전 편성에서 이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보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 보도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텔레비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뉴스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다루는 주된 목적은 그 정보가 국민건강에 유익하게 기여하는데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관련 정보에 필수적인 정보의 누락이나 과장이 있을 경우는 시청자에게 섣부른 판단을 가지게 하여 유해한 또는 무모한 건강행위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은 일상사의 주요 정보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뉴스 보도가 시청자로부터 더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관련 정보를 포함한 유해성 정보가 뉴스 보도에 많았다는 조사 결과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밤 9시 뉴스를 분석한다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특성과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를 대상자 교육이나 상담 제공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특성을 파악한다.
2.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내용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중매체로서의 텔레비전

신문, 서적,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케이블 텔레비전 등과 같이 대중을 상대로 정보나 오락을 제공해 주는 매스미디어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추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가치, 태도를 강화하거나 가치나 규범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수용은 매일 반복된 일과에 그치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각형태, 사고방식, 가치주입, 태도형성 그리고 행위형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상당수준까지 대중매체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현상과 사회현상을 인식한다.

텔레비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신속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관점에서는 방송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틀까지 짜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우리의 지각 구조가 텔레비전 이미지를 통해 형성되므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배양(cultivate)시키며 이로 인해 행위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처럼 대중에게 텔레비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강력하고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게 되었다. 텔레비전이 시청자에게 주는 일련의 효과는 때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사람들의 의견, 태도 및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텔레비전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았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표한 〈1990년 사회지표〉에 의하면 1990년 한국인의 94% 이상이 텔레비전 시청을 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1983년의 84%보다 10%나 증가한 것이다. 시청 시간도 주 16.3시간으로 1983년의 13.8시간보다 2시간 30분이나 길어졌다.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25%가 텔레비전 시청을 들었다고 한다. 텔레비전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 자체가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의 생각,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Lee, 1992). 또한 텔레비전이 갖는 누적적, 반복적이고 전달의 용이성, 계속적인 이용 가능성, 접근의 용이성, 사실주의적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의 전달은 시청자의 사실 인식에 독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현대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한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려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의도를 지니고 정보들을 수집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뉴스와 정보에 둘러싸여 있으며,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때로는 유혹하는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는 정보전달에 의해 인간에게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 혹은 외부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방송뉴스, 특히 텔레비전이 뉴스 및 정보의 일차적인 원천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방송으로 보도되면 그들이 본 것을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텔레비전은 정보나 신념을 집단 간에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다. 또한 뉴스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은 속보성, 동시성, 현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는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에서도 신문을 앞질러 일반 국민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주로 얻는 주(主)정보원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성인 남녀 가운데 80% 이상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TV 뉴스를 시청한다는 최근의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Lee, 1996). 지난 10년 사이에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의 수도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세대에게는 인쇄매체보다 텔레비전 뉴스가 여섯 배나 높은 인기를 차지한다. 다른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은 유동적인 시청자이나, 뉴스 프로그램은 고정 시청자 층을 가진다(Baek, 1993; Kim, 1999).

2) 텔레비전 뉴스의 건강관련 정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비전 뉴스에도 갖가지 건강관련 정보나 내용이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AIDS)의 발생부터 각종 질병과 질환, 혈액기증자의 부족현상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관련된 소식은 높은 뉴스 가치를 지닌다. 40대 사망률 세계 1위라는 충격적 결과가 거듭 강조되고 갑자기 사망하는 과로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성인병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왜곡된 정보를 담은 경우도 적지 않다. 멀쩡한 사람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병자로 만드는 내용

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강 요법이나 치료행위를 보도해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건강 행태 또는 낭비를 초래할 정보를 포함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건강 간호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확대해서 생각하면 해당되지 않을 게 없는 증세들을 나열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각종 영양 식품이나 건강 요법이 오히려 건강한 시청자들을 나약하게 만들 때도 있다. 갖가지 이권이 개입되고 서로 다른 주장이 혼미하게 얽히면서 무원칙적으로 선택된 부정확한 건강관련 정보가 텔레비전 화면에 난무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그 곳에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잃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

앞서 인용한 대한의학회의 보고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텔레비전을 통해 유포되는 건강관련 정보 가운데 과학적 건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16.8%에 해당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거나 또는 오히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의학적으로 확실히 오류임이 밝혀졌거나 판단의 근거가 없고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 가운데는 각각 33.3%와 65.0%가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시청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뉴스 시간에 방영되는 빈도가 높고, 뉴스 보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대중으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확한 건강뉴스의 해악은 더욱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텔레비전이 건강관련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특정한 정보의 전달을 제한하거나 혼용, 오용할 때 수용자가 전달받아야 할 감각과 경험의 세계는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스전달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는 사실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에 왜곡을 일으켜 올바른 의견 및 판단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기관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뉴스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보편성과 과학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철저한 여과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인 보도와는 달리 건강관련 정보에 관한 보도는 인간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과 건강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건강관련 정보에 관한 보도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뉴스를 구성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료의 선택 배경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부터도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추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현실적 한계와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KBS의 저녁 9시 뉴스에서 다루어진 건강관련 정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BS의 저녁 9시 뉴스는 이른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사명으로 삼는 공영방송사의 종합 뉴스프로그램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성이 높은 TV 뉴스프로그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는 1998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만 1년 1개월 동안 방송된 KBS 밤 9시 뉴스에 방송된 건강관련 보도 가운데 단순보도를 제외한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보도를 선택하였다. 제외된 단순보도는 주로 건강사고에 대한 보도이다. 이들은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기보다는 질병이나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건보도로서의 특성이 앞서는 것들이어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건강관련 정보의 전달에 대한 것인 만큼, 분석대상을 건강관련 정보를 다소나마 구체적으로 포함한 뉴스에 국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KBS의 웹 주소(www.kbs.co.kr)를 방문하여 인터넷에 올려진 9시 뉴스 아이템 중 건강과 관련된 방송 보도기사 전체를 출력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단순보도를 제외한 건강관련 정보에 관한 보도 총 489개를 표집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이란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기술하는 분석방법으로, 내용 특성들의 유무, 빈도, 강도 등을 수량적 접근을 통해 내용을 구분해보려는데 목적을 둔 사회과학 분석기법이다(Kim, Lee, 1986). 이에 연구자는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뉴스에서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 중 연구목적과 연구주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표시하고 연구자간에 내용의 검토와 의논을 통해 추출하였다. 추출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보도내용을 근거로 공통되는 특성끼리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 내용을 근거로 이를 건강유지 및 증진, 생명윤리, 성장 및 발달, 질병예방, 질병치료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질병예방과 질병치료의 범주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국제 질병분류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내용을 분석할 때는 코딩유목에 따라 건강관련 정보의 주제에 따라 하위범주로 묶고, 이를 다시 상위범주에 갈라 넣었다. 각각의 뉴스 아이템들을 해당되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코딩하였는데, 연구자들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뉴스보도에 대한 10일간의 내용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었다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코딩하였다. 연구자의 신뢰도는 내용분석방법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동일범주로 집계하고 분석자들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 방법에 의해 3인의 연구자에 의해 계산하였다.

$$\text{신뢰도계수} = \frac{3M}{N_1+N_2+N_3} = \frac{1467}{1471}$$

($N_1+N_2+N_3$: 연구자가 코딩한 전체 수, M: 연구자 간의 일치한 코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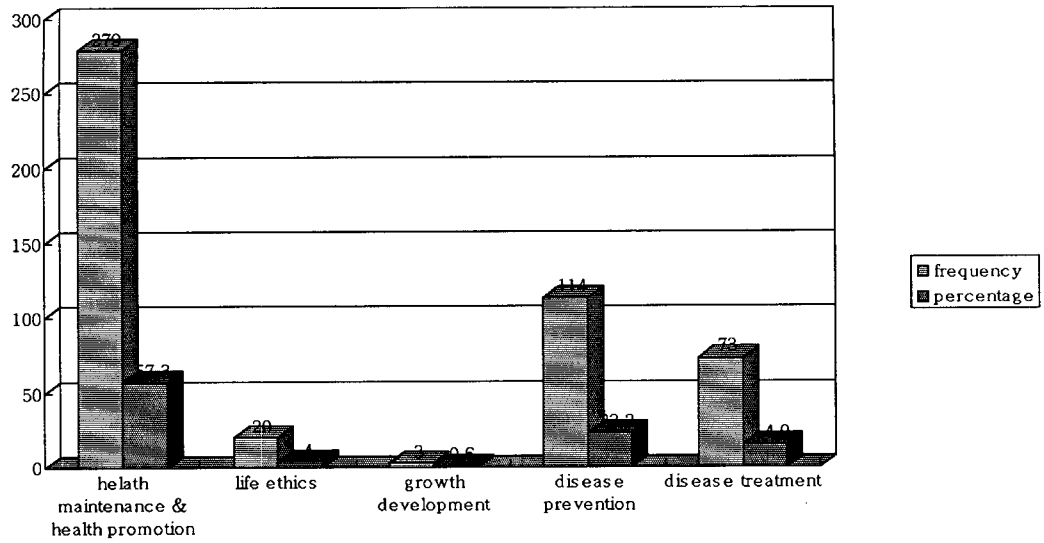
내용분석에서 Holsti 공식을 이용할 경우, 신뢰도 계수는 약 90%면 적당하다고 보는데(Wimmer & Dominick, 1994; Krippendorf, 198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평균 99.7%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간호학 교수 3인과 가정의학과 교수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특성과 범주화 및 건강범주는 내용분석 방법의 수량적 분석 기법으로 제시되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특성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특성으로는 먼저 텔레비전 뉴스 내용의 건강범주 및 질병예방과 질병치료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질병별로 분류하고, 뉴스내용에 나타난 인간의 발달연령을 살펴보았다.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는 건강유지·증진이 279개(57.3%)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예방이 114개(23.2%), 질병치료 73개(14.9%), 생명윤리 20개(4.0%), 성장발달 3개(0.6%)의 순이었다〈Figure 1〉. 이는 아동 건강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1999)의 결과에서 질병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건강유지·증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연령구성이 노령화사회의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유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며, 텔레비전의 건강뉴스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미디어의 속성상 특정 질병에 대한 강조보다는 보다 많은 일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됨에 따라 질병치료나 예방보다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관련된 뉴스가 선별적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텔레비전이 광범위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이나 소수의 시청자나 환자가 가질만한 정보보다는 건강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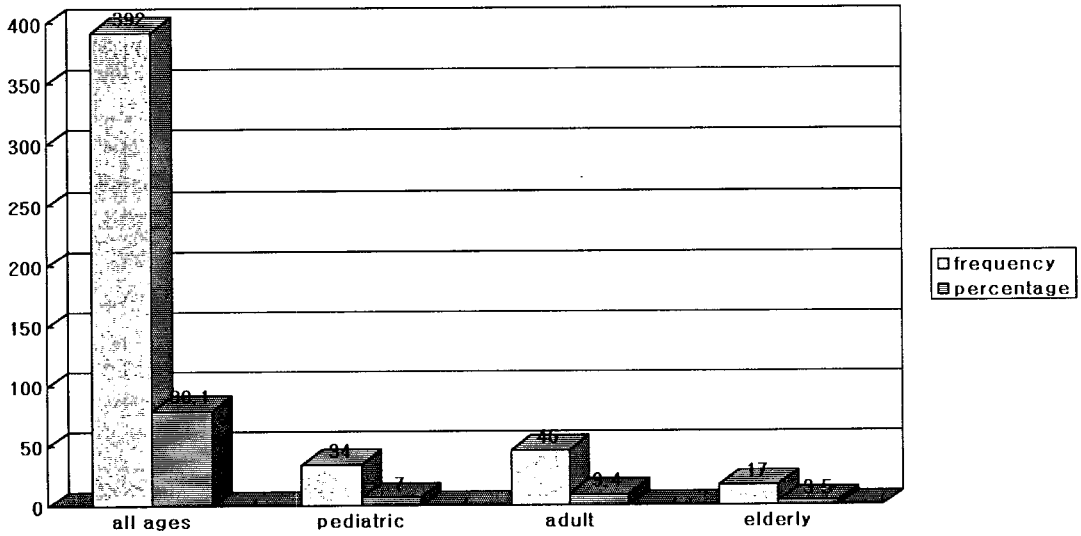
TV 뉴스의 건강관련 정보가 해당되는 인간의 발달연령에 따른 빈도에서는 다수의 건강관련 정보가 발달연령 전체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으며(80.1%), 그 다음으로는 성인(9.4%), 아동(7.0%), 노인(3.5%)의 순이었다〈Figure 2〉. 텔레비전 뉴스의 대상층이 특정한 연령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에 한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뉴스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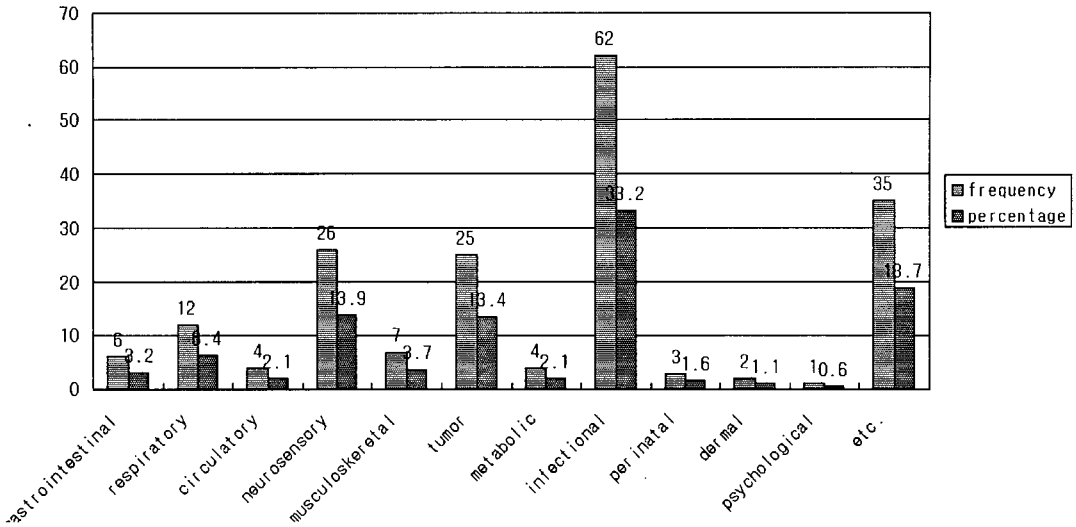
〈Figure 1〉 Health category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 contents

자체가 특정 연령층에 편중하여 나타나기 쉬운 질병에 대한 보도보다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에 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전체 연령층에 모두 해당되는 정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질병예방과 질병치료의 범주에 있어서 WHO의 국제 질병 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보면, 감염성질환이 62개(3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35개(18.7%), 감각신경계질환 26개(13.9%), 종양 25개(13.4%), 호흡기계질환 12개(6.4%), 근골격계질환 7개(3.7%), 소화기계질환 6개(3.2%), 대사성질환 4개(2.1%), 주산기질환 3개(1.6%), 피부질환 2개



〈Figure 2〉 Human developmental age belong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s



〈Figure 3〉 Frequency according to international disease classification

(1.1%), 정신질환 1개(0.6%)의 순이었다〈Figure 3〉. 기타에 분류된 35개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무려 33개는 질병치료 범주에 속하는 최신 의료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감염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가 가장 많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Kim et al, 1999)와도 일치하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 감염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와도 상관이 높다.

2.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분석

1)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

KBS 9시 뉴스가 1년 1개월 동안 보도한 뉴스 가운데 건강관련 정보를 담은 내용은 489개였으며, 이를 같은 주제로 묶고, 그것을 다시 큰 범주로 분류했을 때 건강유지·증진이 20개, 질병예방 11개, 질병치료 10개, 생명윤리 6개, 성장발달 2개의 순으로 범주화되었다〈Table 1〉. 「건강유지·증진」에 속하는 건강정보는 식품위생(7.8%), 건강위협요인(7.5%), 보건의료행정(5.9%), 환경오염(5.1%), 유용한 건강상식(3.9%), 불법 식·약품 및 시술(3.1%), 환경호르몬(2.9%), 의약분업(2.7%), 병원행정(2.6%), 약물복용(2.5%), 마약(2.0%), 의료사고(2.0%), 섭생(1.8%), 금연(1.5%), 의료보험 서비스(1.5%), 노화예방(1.3%), 체중감량(1.3%), 유전자조작(0.9%), 고엽제(0.6%), 건강관련 상품(0.4%)의 순이었다.

「건강유지·증진」의 건강범주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보도된 '식품위생'에서는 채소, 쇠고기 등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내용과 장어에 피임약을 먹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유통기한을 속인 식품, 대장균이나 기타 오염된 식품에 대한 내용 등이 다루어졌다. '건강위협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가슴 성형술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식염수 충전물이 위험하다는 내용과, 충치 메꿈제인 아말감이 수은의 독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보도 등이 있었다. 또한 피부노화를 방지한다는 AHA 제품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게 할 수 있다든지, 최근 젊은 층에 유행하고 있는 워커형 신발은 발가락이 안으로 휘고 뒤꿈치 뼈가 튀어나오는 기형을 초래하여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도도 이에 포함된다. 항생제 남용, 무리한 다이어트, 높은 베개, 과다한 운동 등도 모두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와 함께 이유들이 간단히 설명되었다. 예컨대 다이어트는 골 밀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체중 3Kg 감소시 골 밀도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 제시가 없음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선풍기 앞에서 혈중 산소포화도를 검사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돌연사의 원인이 됨을 증명하였다. 수험생들이 입시의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는 수험생들은 규칙적이고 고른 영양섭취와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장암의 발병 연령이 30-40대가 3배정도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채식을 적게 하고 육류를 많이 먹는 식생활의 변화가 원인이므로 이러한 건강정보를 통해 시청자들이 식생활의 균형을 이루거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추측된다.

휴대폰이 최고 60%의 전자파가 뇌로 침투하여 뇌의 혈액에 있는 유독물질이 뇌조직에 유출되어 조직의 방어체계에 손상이 생김으로써 유해 단백질이 빠져 나와 알츠하이머 같은 불치의 병이 생길 수 있음을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우세하므로 상반되는 의견 진술에 따라 시청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베개가 나쁜 이유는

〈Table 1〉 Category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s brodcasted by TV news

주 제	범주화	빈도 (백분율)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백화점 농약채소, 호주 쇠고기에 농약, 폐기 오렌지 유통, 장어에 피임약 먹여, 위생 0점,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 속였다, 대장균 아이스크림, 표백제 범벅 박하사탕, 잔류농약 위험수준, 대장균 김밥, 꼭 확인하고 드세요, 여전히 시중유통, 냉동만두 세균, 농약 투성이, 위생은 뒷전, 탈 나거나 말거나, 식당 위생 0점, 창란젓에 기생충, 유통기한 제멋대로, 잔류농약 최고 9배, 식품 위생 엉망, 백화점 족발 세균, 기준치 9백배 까지, 유통기한 멋대로, 절반이 감염, 순대에 대장균, 수입고기에 총탄, 못 믿을 만두, 음료에 곰팡이, 음료수에 곰팡이, 건포도에 식중독균, 믹도 못믿어, 기숙사 식중독, 학교 식수 오염 심각, 절반이 감염, 모구 폐기 처분, 중국산에 농약 투성이	식품위생	38(7.8)	
낮에도 힘들다, 칼슘부족 현대인, 식염수도 위험, 살빼는데 마약까지, 미국산 쇠고기 암유발, 부작용 조심 AHA, 항생제 안듣는다, 수돗물?소독약?, 피마사지 까지, 절반이 환자, 멋부리다 발병, 다이어트 골다공증, 선풍기 죽음 현장 실험, 수은중독 위험, 필통에 납성분, 혈액 부족 비상, 알 수 없는 설명서, 죽음의 독감, 높은 베개 해롭다, 고령임신 는다, 입시중암갑-골병, 소금에 극약 성분, 국산램도 위험, 무허가 젖판다, CT촬영 암가능성, 이혼하면 일찍 사망, 어린이 용품 납검출, 19세미만 판매 표시 술·담배 시판, 운동하다 '레저병', 걸으며 담배 피우면, 젊은층도 대장암, 광우병 화장품, 페놀로 마사지, 많이 쓰면 뇌손상, 발암 물질까지, 게임에 중독되면, 병원이 병 만든다	건강위협요인	37(7.5)	
구멍 뚫린 검역, 병 치료도 신토불이,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 못믿을 식약청, 신체검사료 5배차, 우리집 주치의, 보건소 백신 소동, 엄마따로 아기 따로, 무마용 건강조사, 간판만 전문의, 처벌없는 농약 식품, 이질확산 무방비, 장기이식 통합관리, 약값 공개 오락가락, 한의사도 전문화, 결식 학생 대책 없다, 가짜 한약사 판친다, 혼들리는 금연구역, 진료비 부담 준다, 환자 구호 무대책, 식품 검역 구멍, 의원급 종합병원, 독감 백신 동 났다, 25일간 발병 은폐, 부작용 무대책, 노인 진료비 6배, 허술한 검역망, 해외 여행 비아그라, 흡연피해 집단 소송	보건의료행정	29(5.9)	건강유지증진 279(57.3)
낡은 시설 오염가중, 구호뿐인 매연방지, 맹독성 물질 검출, 모유마저 오염, 미세먼지 둥둥, 쓰레기 섬, 상수원 오염, 상수원 오염 심각, 독가스 날아온다, 홍합에 패독, 상수원 보호 비상, 칫 오존 주의보, 잦아지는 오존 경보, 납대량 검출, 패독류 검출, 떼죽음···식수비상, 들통난 검은 양심, 상류에서도 검출, 오존 줄일 수 있다, 상수원서 하수처리, 매연이 폐암 주범, 발암물질 오염 심각, 백혈구가 죽어요, 병원 적출물 어디로, 병원 폐수 몰래 버려	환경오염	25(5.1)	
웃음이 명약, 웃음이 보약, 찜질방 건강 해칠 수도, 골수 기증 괜찮다, 중금속엔 돼지고기, 소금 치명적, 9살 더 산다, 커피가 간암 억제, 혈관질환 비상, 비오면 염소 두배, 가짜 무설탕, 잦은 감기 암예방, 비만이 생명단축, 대머리여 안녕, 지문으로 체질 판별, 비타민C가 특효, 멍게껍질 약된다, 발가락도 퇴화, 얼굴 붉어지면 위험	유용한 건강상식	19(8.9)	
말뿐인 만병통치약, 가짜꿀로 만든 인삼정제, 가짜 한알 3만원, 난다는 머리는 안나고, 약인줄 알았더니, 가짜 비아그라 유통, 엉터리 빈혈약, 허위 약효 광고, 사람잡을 특효약, 오염렌즈·유통, 염색 고춧가루, 속임수에 바가지, 소금이 만병 통치약, 저질 알부민 유통, 고춧가루 불법 유통	불법식·약품/시술	15(3.1)	
뇌신경도 파괴, 성도 바꾼다, 환경호르몬 검출, 남성 능력 저하, 수돗물에서 검출, 랩에서 환경 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환경호르몬 검출, 국내산의 50배, 한국 남성은, 육류보다 10배, 정자수 줄인다, 정자수 감소, 정자수 감소	환경호르몬	14(2.9)	

디스크와 근육통의 원인이 되고 기도가 좁아져 수면 중 호흡량이 감소되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통상 높은 베개는 수명을 재촉한다는 속설이 정확한 보도를 통해 원인이 알려지는 것으로 보여 가벼우면서도 적절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고령임신이 증가한다는 내용에서는 만혼과 자녀 터울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산모와 태아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건강 전문가들은 최근의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독신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를 통해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결국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혹은 해칠 수 있는 요인을 적절히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보도가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항생제 남용에 대한 보도나 체중감소 보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충분한 원인규명이나 대안제시가 부족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지적일 뿐이다. 항생제 남용이 조장되는

〈Table 1〉 Category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s brodcasted by TV news〈continued〉

주 제	범주화	빈도 (백분율)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일반병실 못구한다, 입원비 횡포, 진료비 바가지, 진료비 인상수단, 예약하나마나, 종합병원 영안실 횡포, 장사속 비싼 병실, 간병비 월 100만원, 속터지는 환자들, 돈만 먹는 암센터, 못 믿을 건간 검진, 이중 진료비, 초진 환자 편법 진료	병원행정	13(2.6)	
가닥 잡은 의약분업, 62개 약 슈퍼판매, 의약분업 물거품, 의약분업 타결, 진료조제 분리, 병원 약국 없어지나, 환자부담 는다, 팔장낀 복지부, 약국 웃고 병원 울고, 인터넷 의약분업, 동네약국 비상, 의약분업안 통과, 환자 부담 는다	의약분업	13(2.7)	
부작용 사망 200명, 한방 비아그라, 심장병에 치명타, 양잿물 관장액 유통, 부작용 2명 사망, 애물단지 비아그라, 비아그라 밀수 유통, 주사 남용 3배, 약국대신 밀거래, 행복을 주는 약, 한국인 부작용 많다, 처방있어야 판매	약물복용	12(2.5)	
마약류까지 유출, 마약치료 갔다가, 신종마약 비상, 어설픈 투여사망, 살빼기 편승 밀수, 살빼는 약 위험, 싼값에 너도나도, 환각 비만 치료제, 화장품 외판 이용, 신종 마약 밀반입	마약	10(2.0)	
의료사고 5백건, 2차감염 무방비, 뱃속에 거즈 넣고, 뱃속에 수술기구, 충치 뽑다가, 병원에서 병 키운다, 구호만 환자중심, 병원 무방비, 환자 생명 위협, 양잿물 관장	의료사고	10(2.0)	
당류 과다 함유, 모유먹여야 튼튼, 엄마들이 기피, 한두잔은 보약, 물 많이 마셔야, 마늘이 항암제, 무공해 식품 뜬다, 김치 항암효과, 신종 식량 갖가지	섭생	9(1.8)	건강유지증진
대규모 건물 금연화 추진, 범국민 금연운동, 간접흡연 위험 더 커, 태아에 치명적, 약주고 병주고, 흡연율 세계 최고, 흡연이 주원인	금연	7(1.5)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상유보, 의료보험료 인상, 의료서비스 실종, 의료수가 차별화, 의보료 인상 반발, 한방에도 적용, 보험없는 치료식품	의료보험서비스	7(1.5)	
주름살 없앤다, 노화 막는다, 뇌세포 젊게한다, 노화 막을 수 있다, 노쇠 근육 젊게 한다, 불노 유전자 발견	노화예방	6(1.3)	
단기 감량은 위험, 몸 떨면 살 안찐다, 살빼기 용품 인기, 살빼기도 거품, 허리 둘레 재봅시다, 비만인 사망률 12배	체중감량	6(1.3)	
유전자 조작 피해야, 안전성 검증 안되, 수입콩 못믿어, 조작 표시해야	유전자조작	4(0.9)	
2세까지 후유증, 고엽제 판정 논란	고엽제	3(0.6)	
발이 건강해야, 옷으로 건강체크	건강관련상품	2(0.4)	
인간복제 어디까지 허용, 비상 인간복제, 무서운 결과, 복제 위험천만, 일찍 죽을까, 인간복제 실험성공, 인간복제 논란가열, 인간복제 논란 확산, 인간 복제 논란 가열	인간복제	9(1.8)	
여성만으로 임신, 인간 정자 쥐로 배양, 세계 2위 낙태천국, 보건소가 강제 불임, 태아 연구 첫인정	인권침해	5(1.0)	
안락사도 살인행위, 안락사 의사 실형, 안락사 첫 합법화	안락사	3(0.6)	생명윤리 20(4.0)
뇌사인정	뇌사	1(0.2)	
난자를 팝니다	생명경시	1(0.2)	
어린이 장기밀매	장기매매	1(0.2)	
아동학대 위험 수위, 유아발달 저해	성장발달 위험요인	2(0.4)	성장발달 3(0.6)
오른쪽 뇌 더 크다	발달특성	1(0.2)	

〈Table 1〉 Category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s brodcasted by TV news〈continued〉

주 제	범주화	빈도 (백분율)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감염자 관리실종, 전염병 환자 급증, 전염병 비상, 전염병 막는다, 1분에 11명 감염, 에이즈 감염자 급증, 세균온상 자판기, 비상 식중독, 식중독 사망 비상, 원인은 살모넬라, 침대에도 비브리오, 주민 절반 감염, 0-157 발병, 때이른 이질 발생, 이질 공포, 한번으로 독감 끝, 식인 박테리아, 살파먹는 박테리아, 말라리아 공포, 말라리아 모기 비상, 말라리아 남하 비상, 남원 35.5도, 진드기가 원인, 죽음의 괴질 기승,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발령, 콜레라 환자 2년만에 처음 발생, 비브리오 북상 비상, 열대성 질병 급증, 이질확산, 건강도 비상, 전염병 비상, 수영장 감염, 이질 전국 확산, 식중독 학생 또 늘어, 볼거리 확산, 샐러드에 대장균, 냉각수 세균 검출, 더위 환자 만원, 중국모기 비상, 이질균 확산, 3대 전염병 비상, 혈우병 환자 감염, 신종 바이러스, 전염강한 수두, 위험 기생충 놀이터, 때아닌 이질 비상, 겨울 식중독, 살모넬라 비상, 전국에 광견병 주의보, 슈퍼박테리아 비상, 치사율 30%, 집단 식중독 비상, 잇단 치사성 세균, 환자 12명 발생, 식중독 전국 비상, 에이즈 급속확산, 독감 주의보, 세탁해도 세균 여전	감염성질환	58(11.9)	질병예방 114(23.2)
뇌성마비 예방한다, 자외선에 눈조심, 감기후 중이염, 젊은 뇌졸중 급증, 뇌질환 조기진단, 벌써 모기비상, 또 알레르기 비상,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온몸이 굳는다, 온몸 굳는 직업병, 젊은 층에 노인질병, 독버섯 중독, 공수병 비상, 광견병 비상, 광견병 남하, 광견병 확산, 노인환자 급증, 뇌졸중 주의보	감각 신경계질환	18(3.7)	
겨울감기 극성, 감기조심, 일교차 감기, 천식어린이 15%, 독감원인 칼리시, 흡연피해 인정, 조심 독감, 독감 주의보, 호흡기 안질 조심, 목감기 기승, 독감보다 독한 감기	호흡기계질환	11(2.2)	
획기적 간암 진단, 대장암 억제, 소변 검사로 암진단, 뇌종양 위험, 방사능 물질 검출, 첫 직업성 백혈병, 암세포 확산 억제, 업무상 재해 인정, 작업장 암위험, 혈액으로 암진단, 암 무료진단	종양	11(2.2)	
음주 뒤 해열제 위험, 스트레스 위염 급증, 40대 간조심	소화기계질환	3(0.6)	
배란촉진제 쌍둥이 출산원인, 얼굴기형 급증, 기형아 출산위험	주산기질환	3(0.6)	
스트레스성 직업병, 코골이와 고혈압	순환기계질환	2(0.4)	
잘 못 메면 키 안커, 젊은 남성도 위험	근골격계질환	2(0.4)	
세 살 비만 여든까지, 비만 걱정 사라진다	대사성질환	2(0.4)	
피부노출 조심, 피부 건조증 주의보	피부질환	2(0.4)	
병치료도 사대주의, 포르말린 첨가 무죄	기타	2(0.4)	
인공장기 만든다, 신체조직 은행, 인조인간 나온다, 병원 갈 필요없다, 지구력 강화제 추출, 말라리아 백신 개발, 절개 않고 뇌수술, 원조는 침팬지, 간신장동시 이식, 생명의 신비 풀린다, 니코틴 감소 유전자 발견, X선으로 진단, 관절도 기른다, 부작용 치유수술, 유전자 감식 특허, 국내 첫 신약 개발, 백신 개발 눈앞에, 먹는 백신 첫 개발, 살아있는 약품공장, 획기적 예방백신, 손상된 뇌 살린다, 혈청분리 첫 성공, 안전 진통제 개발, 감기 바이러스 세포 결합 차단 성공, 당뇨 치료에 돌파구, 인체 비밀 벗긴다, 각막 시험관 배양, 생명공학, 장기이식 사각 지대, 사람머리도 이식, 돼지 장기 이식 안전, 세계적 신약 개발, 위궤양 신약 개발	최신 의료기술	33(6.7)	질병치료 73(14.9)
수술없이 종양 제거, 암세포만 죽인다, 항암물질 분비, 암세포 자살 유도, 뇌종양 치료 신기술, 위암 내시경 수술, 염소에서 암 치료제, 암세포도 죽인다, 근본치료 가능, 암수수께끼 풀었다, 백혈병 치료제, 위암 살 수 있다, 백혈병 치료제, 한방 항암제	종양	14(2.9)	
재발없는 수술, 치매 치료길 열린다, 전기자극 간질치료, 손저림 신경장애, 치매치료길 열렸다, 치매원인 찾았다, 통증없는 충치치료, 그날로 해 넣는다	감각 신경계질환	8(0.6)	
골다공증 신약 개발, 부작용 줄인 뼈수술, 뼈이식 새전기, 한국형 고관절, 치료길 열린다	근골격계질환	5(1.0)	
결핵환자 급증, 세포 침입차단, 에이즈 억제 물질, 에이즈 정복	감염성질환	4(0.9)	
4명연쇄 간이식, 새 간염치료제, 달걀먹고 위염 치료	소화기계질환	3(0.6)	
국내 인공신장 이식, 협심증 재발 방지법	순환기계질환	2(0.4)	
비만치료 가능, 옥광산이 치료실	대사성질환	2(0.4)	
2-3년내 감기정복	호흡기계질환	1(0.2)	
이렇게도 치료	정신질환	1(0.2)	
합 계		489(100.0)	

의약품 유통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의 발굴 등으로 보도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행정'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가 허술하다는 내용과 범국민 금연운동에 맞추어 금연지역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약채소에 대해 방관하는 식약청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장기이식의 통합관리를 국립기관에서 관리한다는 내용, 노인진료비가 비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용한 건강상식'에서는 웃음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된 세포와 종양세포를 공격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바탕 웃으면 얼굴근육 80개가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 진통작용이 있는 호르몬과 엔돌핀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심박동, 혈압, 근육의 긴장이 감소되어 항체의 기능을 증가시킨다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까지 백혈병의 유일한 치료는 골수 이식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일반적 거부감이 높지만 의학적으로는 골수 기증으로 인해 기증자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 잡고 골수 기증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유난히 붉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신체가 독성물질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돼지고기가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속설을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보도도 있었다. 의학적으로 찜질은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으나 결핵과 콩팥, 간 장애나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유행하고 있는 찜질방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는 인체가 갑자기 높은 열에 노출되거나 너무 오래 찜질을 하면 과도한 열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 때 수돗물을 사용한 수도관 속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인으로 소독용 염소가 평소의 2배가 넘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비가 올 때는 물의 오염도가 심해져 과다한 염소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몸 안의 항체가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핵, 종기, 골수 괭창, 패혈증, 폐렴, 간염, 기관지염, 헤르페스나 설사 등을 앓았던 사람에서 암 발병율이 낮았음을 보도하였다. 성인용 시리얼을 먹은 생후 4개월된 아기의 사망을 보도하면서 성인의 소금 섭취 권장량은 6g정도이지만 갓난아이는 0.5g만 섭취해도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한다는 건강정보를 통해 염분이 우리 신체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평균 수명에 대한 보도에서는 현재 74.4세로 20년 동안 4세가 증가되어 1년에 0.5세 꼴로 증가되었다는 내용이었으며 순환기계질환, 암, 교통사고가 3대 사망원인으로 제시되었고,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암과 직장암이 높은 우선순위임을 보고하였다. 커피를 마시는 집단에서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커피의 성분이 세포막에서의 생체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함으로서 암을 억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되는데, 보도된 정보에는 유해한 측면은 제공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암협회가 비만일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며 뚱뚱할수록 위험은 더 증가한다고 경고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는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외출일지라도 급격한 온도차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와 목 등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머리털이 없는 부분에 유전자를 주입하면 털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잠자고 있는 모공을 활동하는 모공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일회성의 정보제공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이다. 비타민 C가 감기예방 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에도 좋음을 알려주었으며 우렁생이의 껍질이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추출시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변비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유용한 건강상식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텔레비전 정보가 실제 건강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뉴스가 제공한 건강상식은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체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인다. 그러나 특정 요법의 일면적 장점만을 제시하는 것(예컨대 커피의 경우)은 적절한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호르몬'에서는 환경호르몬이 성기능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뇌신경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국내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벨기에 산의 1/50 정도라는 내용도 있었다. 환경호르몬이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정자 수 감소,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것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 남성의 정자 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된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오염'에서는 대기오염, 바다오염, 중금속 오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여성의 모유에서 중금속과 독성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생후 3개월까지 몸 안에 쌓이는 다이옥신 양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생후 4개월까지만 모유를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유는 아기 건강에 최고라는 수많은 임상결과와 현재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아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보는 시청자에게 혼돈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매연 등으로 오존 경보가 잦아짐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매연이 호흡기질환과 비강 내, 눈 점막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며, 2-3시경에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것, 도심 주차장 무료개방, 공회전과 에어컨 자제, 헤어스프레이 자제하는 것이 오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패독이 검출되었음을 알려 주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바닷물의 오염으로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 패독은 처음에는 구토나 현기증을 보이다가,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지마비나 언어장애,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1,000만명 당 11,000명 정도의 발암요인이 있음을 보도하면서 서울의 경우 미국 보다 8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노화예방'에서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화가 성장호르몬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노화를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반되는 자연적인 증상이 아닌 질병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톡스, 알로돔 등의 약물을 주사하여 주름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요법을 이용해 늙은 원숭이의 위축된 뇌세포를 젊은 세포로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내용과 세포가 늙고 소멸하는 것을 막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텔로메라제 효소가 죽어 가는 세포를 살려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젊을 때의 근육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요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연구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모든 일반인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부분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므로 인간에게 적용되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높은 뉴스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라든지,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결과에 불과한 사실을 마치 노화예방책인 양 보도하는 것은 흥밋거리의 제공은 될망정 노화예방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섭생'에서는 매일 한 두 잔 씩 꾸준히 마시는 술이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결과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매일 적당히 꾸준히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50%나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 섭취는 아직까지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방광암 예방에 어떤 음료든 하루 11잔 이상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내용도 있었다. 하루에 생 마늘을 반쪽씩 먹으면 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마늘 속에 있는 요소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소를 장이 분비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마늘이 암을 억제하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이 저조함을 보도하였는데, 실제로 모유에는 성장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원만한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우유를 먹는 아이에 비해 저항력이 3배나 강하다. 숙성된 배추김치를 암에 걸린 쥐에게 투여한 결과 암이 억제되었다는 내용 또한 항암효과가 있는 섭생중의 하나로 숙성된 김치의 섭취가 중요함을 알려주었다. '금연'에서는 폐암 등 일부질환의 경우 간접흡연이 오히려 직접 흡연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흡연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의 건강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끼친다. 우리 나라 전체 흡연률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2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여성의 흡연은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흡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임신한 여성의 경우 특히 위험하다. 이는 태반을 통해 발암물질이 전달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물복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아그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포함되었다. 세계적으로 200명 가량이 사망해서 시판 허용을 망설인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임의로 비아그라를 복용하

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체중감량'에서는 몸을 떠는 행동이 살이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몸을 가능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열량소비를 늘여 체중증가를 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떠는 것 자체가 운동은 아니므로 이보다는 칼로리 소비를 늘리는 적절한 운동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복부 깊숙한 곳에 지방이 쌓여 허리둘레가 커지면 직·결장암의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과체중 자체는 직·결장암의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체중의 분포 형태가 직·결장암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식품위생'에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속에 포함된 농약, 독, 중금속에 관한 내용이었다. 과일이나 야채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9배에 가까운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보도하면서 잘 씻어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대안이 미약하다. 그리고 각종 통조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채 판매되고 있어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며 통조림이 부패되면서 화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십개의 납산탄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였다. 실제로 납은 인체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섭취시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건강관련 상품'에서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 관련 상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학적인 조언이나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다. 옷 속에 자동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옷만 입고 있어도 건강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상품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이는 광섬유로 만든 이동 정보처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심박동이나 호흡, 체온 등을 점검해 주고 몸 속에 이상이 발생하는 즉시 센서로 측정돼 무선으로 멀리 떨어진 중앙 처리 장치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전자 옷이 실용화되면 집안에 의사를 두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은 허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에서는 중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불법 수입된 살 빼는 약들에 환각성분이 들어있어 심각한 폐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마약에 대한 보도는 미국 등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마약 실태가 그다지 극심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의 사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보도가 바람직하다. '불법식·약품/시술'에서는 시중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영양제가 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내용이었다. 시중에 무수히 많은 이른바 영양제/식품 등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조치나 계몽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은 대체로 미미하였다. '유전자 조작'에서는 유전자 조작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건강유지·증진의 범주에 속한 내용을 살펴볼 때, 위의 정보는 대체적으로 시청자들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모유가 오염되어 있다는 내용이나 모유를 먹여야 아기 건강에 좋다는 내용은 서로 상반되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수 도 있다. 즉, 이러한 내용은 시청자의 판단에 왜곡을 일으켜 올바른 의견 및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개된 새로 개발된 요법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긴 시간과 수많은 검증이 요구되는데, 마치 지금 당장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주어 지나친 기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일면적 정보제공이라든지 시험단계의 사실을 확정 사실처럼 과장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지, 대책의 제시에 미흡하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2) 생명윤리, 성장발달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

「생명윤리」의 범주에 속하는 건강정보는 인간복제(1.8%), 인권침해(1.0%), 안락사(0.6%), 뇌사(0.2%), 생명경시(0.2%), 장기매매(0.2%) 등이 있다. '인간복제'에 난자만으로 배란에까지 성공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윤리적 논쟁에 대한 보도에서는 인간복제 기술의 상업화로 인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복제동물이 정상동물보다 빨리 늙는다는 내용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인권침해'에서는 인간 태아세포를 사용하는 연구를 공식 승인하였다는 내용과, 성감별, 낙태율이 세계 2위라는 내용, 장애인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했다는 내용, 무정자증 환자로부터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생쥐의 정소에서 정자를 육성하는데 성공한 내용 등이 있었다. 안락사를 시킨 의사에게 살인행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내용 등의 보도가 있었다. '생명경시'에서는 미국 여대생들의 난자매매 성행을 다루었으며 '장기매매'에서는 장기매매를 위한 아동의 불법 장기적출에 관한 내용이었다.

생명윤리 범주 내용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가지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대상

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다각적인 시각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 시청자가 많지 않을 것은 당연하지만, 각각의 문제들이 지니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보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장발달」의 범주에서는 성장발달 위험요인(0.4%)과 발달특성(0.2%)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성장발달 위험요인'에서는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아동학대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내용과 보행기를 타는 아이가 성장·발달이 늦다는 내용이었다. '발달특성'에서는 TV, 컴퓨터 등 감각적인 자극으로 인해 우리 나라 아동의 오른쪽 뇌가 더 크다는 내용이었다. 발달특성에서는 대체로 사실적인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보행기가 아동의 신체, 지능의 발달을 저해하므로 사용 금지를 주장한 내용은 부작용만을 부각시킨 경향이 높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보행기가 아동의 운동발달을 촉진하는 이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예방이나 해결책 같은 정보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장발달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다른 건강범주와 비교해 볼 때 0.6%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내용의 특성상 아동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성장발달 시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기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질병예방과 질병 치료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

「질병예방」의 범주에는 감염성질환(11.9%), 감각신경계질환(3.7%), 호흡기계질환(2.2%), 종양(2.2%), 소화기계질환(0.6%), 주산기질환(0.6%), 순환기계질환(0.4%), 근골격계질환(0.4%), 대사성질환(0.4%), 피부질환(0.4%), 기타(0.4%)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감염성질환'에서는 방역당국의 에이즈 관리가 허술하다는 내용, 에이즈 백신 개발에 대한 내용,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내용, 알레르기 원인이 진드기라는 내용, 세균이 많은 자판기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보도가 많은 이유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 감염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한 원인이 있으며, 동시에 질환의 성격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정보의 전파를 통한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각신경계질환'에서는 뇌성마비의 원인이 자궁내 감염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이라는 물질이라는 내용과 뇌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이 국내에서도 개발되었다는 내용, 감기에 걸린 아동의 5%가 중이염으로 진행되며 20-30대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 강한 자외선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호흡기계질환'에서는 독감과 비슷한 독한 겨울감기와 칼리시 바이러스 독감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황사현상이 각종 호흡기계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 아동에 있어서 천식의 조기진단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종양'에서는 한번의 검사로 종양의 발생과 종류, 치료 후 변화까지 진단한다는 내용과 포도주에 암세포의 확산과 박테리아 감염을 억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마늘과 영지버섯이 대장암을 억제한다는 내용, 소변 하나만으로 암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내용과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소화기계질환'에서는 IMF이후 위염 증가와 40대 남성의 간 질환자가 여성의 9배이며 음주 뒤 해열제는 간 손상과 위출혈을 야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산기질환'에서는 배란촉진제 사용으로 쌍둥이 탄생이 증가했다는 내용과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와 임신부의 약물남용으로 인해 어린이 얼굴 기형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순환기계질환'에서는 코골이가 고혈압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내용이었으며 '근골격계질환'에서는 배낭을 아래로 축 처지게 메면 키가 크지 않는다는 내용과 젊은 남성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음을 경고하였다. '대사성질환'에서는 어렸을 때 비만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과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내용, '피부질환'에서는 춥고 건조한 날씨는 피부 소양증을 야기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질병예방의 범주에 속하는 정보의 전달은 질병치료보다는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효과를 의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가치가 높으며 질병예방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보도의 증가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변화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질병치료」의 범주에는 최신의료기술(6.7%), 종양(2.9%), 감각신경계질환(1.6%), 근골격계질환(1.0%), 감염성질환(0.9%), 소화기계질환(0.6%), 순환기계질환(0.4%), 대사성질환(0.4%), 호흡기계질환(0.2%), 정신질환(0.2%) 등에 대한 보도가 포함된다. '최신 의료기

술'에 대한 보도로는 흡연시 도파민이 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전인자를 발견했다는 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침팬지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밝혀 에이즈 치료에 장을 열었다는 보도, 간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는 보도, 인간관절을 동물의 몸 속에서 배양한다는 내용 및 파킨슨병 치료시술 개발에 대한 보도, 한번으로 평생 독감 예방이 되는 백신 등의 개발과 위궤양과 호흡기 감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보도, 기증 받은 장기를 냉동시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내용과 인공장기나 동물의 장기이식에 대한 보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소개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속성에 따른 당연한 보도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흥미성 보도일 수도 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려운 면도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눈을 끄는 뉴스이기는 하지만 질병 치료에 당장 이용될 가능성은 대체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종양'에 관한 사항으로는 레이저로 유방암과 뇌의 악성 종양을 제거한다는 내용과 암세포만을 골라 죽여 고통과 후유증이 적다라는 내용,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위내시경이 위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 형질 변형 혹염소의 젖에서 백혈구 증식인자가 나온다는 내용, 비정상 유전자를 공격하여 백혈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자궁 경부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방 항암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감각신경계질환'에 대한 보도로는 레이저 치료로 통증과 출혈이 적은 치아치료, 발치 후 즉시 영구치 이식하는 방법, 재발 없는 백내장 수술, 치매 백신의 성공으로 치매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내용, 전기자극 발생 장치를 통한 간질치료 그리고 손 저림은 손목 신경의 손상이라는 등의 보도가 있었고, '근골격계질환'에서는 손상된 뼈를 재형성시키는 골다공증 치료, 인체에 무해한 인공 관절 제작으로 골다공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감염성질환'에서는 결핵환자가 10%이상 급증했다는 내용과 에이즈 세포가 인체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소화기계질환'에서는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제에 대한 내용, 4명 연쇄 간이식 수술 성공에 대한 내용, 어미 닭에서 만들어진 항체의 면역성이 달걀로 전달된다는 내용이었다. '순환기계질환'에서는 한국형 인공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사성질환'에서는 멜라닌 억제 호르몬으로 식욕을 조절하여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에게 옥광산이 치료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호흡기계질환'에서는 감기치료에 획기적인 신약이 3년 안에 탄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정신질환'에서는 치매나 자폐증에 음악을 듣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치료가 된다는 내용이 각각 다루어졌다.

질병치료에 관한 뉴스는 해당 질병의 환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관심을 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보도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질병치료의 범주내용은 의과학의 발달로 인한 최신 의료기술을 소개하면서 각종 질환에 따른 질병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어 대상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 당장 유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잘못 이해되는 경우 새로운 요법이 되려 건강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는 일부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과학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제별 보도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많은 정보는 시청자들이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지식과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레비전 뉴스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큰 잠재력을 가진 매체이므로 계속적으로 국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성,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에 근거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 때에는 시청자들간의 지식 격차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는 방송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방송되는 정보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은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매체로서,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뉴스는 다양한 정보와

신념을 전달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수단으로 강한 호소력을 대중에게 발휘한다. 그 결과 TV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건강관련 정보는 인간의 생활양식 및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TV 뉴스에서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에 관한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를 대상자 교육이나 상담 제공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관련 정보를 보도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1998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만 1년 1개월 동안 방송된 KBS의 밤 9시 뉴스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선택하여 신생아부터 노인까지의 건강과 관련된 보도 중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집된 총 표본수는 489개로 이들 건강관련 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49개의 하위범주로 나뉘어졌으며 다시 5개의 상위범주로 묶일 수 있었다. 건강정보 내용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련 정보 내용의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는 건강유지·증진에 279개(57.3%)의 뉴스 아이템이 분류되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질병예방이 114개(23.2%), 질병치료가 73개(14.9%), 생명윤리가 20개(4.0%), 성장발달이 3개(0.6%)의 순이었다.

2. 건강관련 정보가 다룬 대상자의 발달연령에 따른 빈도에서는 발달연령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80.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9.4%), 아동(7.0%), 노인(3.5%)의 순이었다.

3. 건강유지·증진에 포함된 하위범주의 뉴스로는 식품위생, 건강위협 요인, 보건의료행정, 환경오염, 유용한 건강상식, 불법식·약품/시술, 환경호르몬, 의약분업, 병원행정, 약물복용, 마약, 의료사고, 섭생, 금연, 의료보험 서비스, 노화예방, 체중감량, 유전자 조작, 고엽제, 건강관련 상품 등 20개 부문에 걸쳐 전체의 5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생명윤리와 관련된 보도로는 인간복제, 인권침해, 안락사, 뇌사, 생명경시, 장기매매 등 여섯 가지 하위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성장발달에 관련된 보도는 성장발달 위험요인과 발달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0.6%로 가장 적었다.

5. 질병예방과 질병치료의 범주에 속하는 보도에 있어서 WHO의 국제 질병 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살펴보면, 감염성질환(33.2%)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18.7%), 감각신경계질환(13.9%), 종양(13.4%), 호흡기계질환(6.4%), 근골격계질환(3.7%), 소화기계질환(3.2%), 대사성질환(2.1%), 주산기질환(1.6%), 피부질환(1.1%), 정신질환(0.6%)의 순이었다. 질병예방은 11개의 하위범주로 전체 건강범주의 23.2%를 차지하였으며 질병치료는 10개의 하위범주로 총 14.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1년 1개월 동안의 1개 TV 방송사 뉴스의 건강관련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모든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좀 더 많은 TV 뉴스에서 보도된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건강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가 산출되리라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가 만 1년 1개월 동안의 TV 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좀 더 오랜 기간동안 많은 방송사를 포함하여 방송사간 차별성 유무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TV 뉴스에서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가 일반 국민들의 건강행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TV 뉴스에서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

An, S. S. (1994). *Social pathologic phenomena and broadcasting.* Korean Committee of Broadcasting.

Baek, S. G. (1997). *Television news.* Institute of Korean Broadcasting.

Bennett, W. L. (1983). *News.* Longman Inc., N.Y.

Cha, B. G. (1987).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eoul: Saeyoungsa.

Choi, J. H., Kang, H. D., Oh, T. S. (1990). *Mass media and society.* Seoul: Nanam.

Comstock, G., Scharrer, E. (1999). *Television.* Academic Press Co., California.

Hean, T. S. (1996). *Television.* Seoul: Dongmoon-sun.

Hiebert, R. E. (1995). *Impact of Mass Media: Current Issues.* Longman, N.Y.

Huh, Y. (1999). *16.8% of TV health informations are harmhul to our body.* (1999, November 11). The Dongah Post. p. 40.

Jung, T. Y., Bak, Y. G. (1995). *TV news, how to look at?.* Seoul: Cham Media.

Kang, S. H., Chai, B. (1996).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mass communication.* Seoul: Hannare.

Kim, C. S. (1996). *Newpaper and broadicasting of multi-media period.* Seoul: Nanam.

Kim, H. C. (1993). *Modern broadcasting and the masses.* Seoul: Nanam.

Kim, H. G. (1993). *Theory of broadcasting news.* Seoul: Nanam.

Kim, H. S, Kim, Y. S, Kim, Y. J., An, J. I., Won, Y. J., Hwang, I. S. (1996). *Family and broadcasting.* Seoul: Jipmoondang.

Kim, H. S. (1985). *The role of mass media as a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Kim, I. S., Jung, I. S. (1995). *Understanding of modern mass media.* Seoul: Nanam.

Kim, J. I. (1989). *The acceptance process of mass media information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yang, Seoul.

Kim, K. C. (1999). International broadcasting news, without suggestion of alternatives, only reports event results.(1999, Setember 14). The Chosun Post. p. 39.

Kim, K. D., Lee, O. Z. (1986). *Research methodology of social study.* Seoul.

Parkyoungsa. Kim, K. (1998). *Broadcasting media.* Seoul: Nanam.

Kim, K. T. (1991). *Television, how to look at?.* Seoul: Hannarae.

Kim, S. J., Lee, J. E., Choe, H. S. (1999). Evaluation of child health information in main newspaper reports.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Nursing. 5*(3).

Kim, S. J., Lee, J. E., Lee, J. H. (1999). Contents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 about child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Nursing.* 5(2), 167-184.

Korean Academy of Medicine (1999). *Evaluation of adequacy about internal TV health informations.* Seoul: Aram.

Korean Broadcasting Legation (1985).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society.* Korean Broadcasting Legation.

Korean Broadcasting Legation (1989). *Broadcasting and the society.* Institute of broadcasting culture.

Korean Press Foundation (1990). *TV news reports.* Korean Press Foundation.

Korean Press Foundation (1996). *Audience survey.* Korean Press Foundation.

Krippendorf, K.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 Sage.

Lee, D. W. (1994). *The role of broadcasting to make healthy family, healthy society.* Korean Committee of Broadcasting.

Lee, H. S. (1992). *Group for new theory about the influence of television.* Committee of Korean broadcasting culture.

Lee, I. O. (1985). *The objectivity of new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Lee, K. J, Lee, I. H. (1997). *Practice of broadcasting reports.* Seoul: Hanul Academy.

Lee, M. E. (1991).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roadcasting news.* Munhaw Broadcasting.

Lee, M. E. (1996). *Understanding of Korea TV journalism.* Seoul: Nanam.

Oh. J. H. (1990).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Seoul: Nanam.
Park, Y. S. (1999). *Broadcasting journalism to be changed.* Paper presented at the neeting of the professionalism dissertation.
Shin, H. E. (1991). *Broadcasting journalism.* Seoul: Bumwoosa.
Smith, M. C. (1992). Nursing's unique focus on health promotion. *Nursing Science Quarterly,* 5(2), 105-106.
Son, S. H. (1999). *Contents and news value in Korea TV jour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neeting of the professionalism dissertation.
Sung, H, Y. (1999). *Frequency of article and problem broadcasted repor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The Committee of Korean Press Society(1994). *Modern society and mass communication.* Seoul: Hanool Academy.
The Korean Broadcasting Academic Society (1993). *Broadcasting reports.* Seoul: Nanam.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Yoo, I. S. (1996). *People and Broadcasting.* Seoul: Chungnyunsa.
Yoo, J. C. (1993). *Research method of mass media.* Seoul: Nanam.
Yoon, H. J. (1991). *Broadcasting and Adolescent culture.* Seoul: Munhaw Broadcasting.

- Abstract -

How Healthy is the Health related Informations brocated by TV News?

Kim, Shin Jeong · Lee, Jung Eun***
*Kim, Shin Dong****

Television news programs are becoming significant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health coverage of the prime time news program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KBS 9 o'clock news in the period of thirteen months, from December 1, 1998, to November 1, 199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liability degree was 99.7% according to the Holsti's inter-coder reliability test.

The current research classified 489 health related news items into 49 sub-categories and five health categories through content analysis.

Some of the basic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requency according to health category, health maintenance · promotion(57.3%) topped followed by disease prevention(23.2%), disease treatment(14.9%), life ethics(4.0%), and growt h · development(0.6%).

2. According to human developmental age, for the most part(80.1%) is applicable to the entire range of human developmental age.

3. Health maintennance · promotion category take top of health category by the rate of 57.3% and contain 20 sub-categories.

4. News items in the life ethics category,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kimsj@hallym.ac.kr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College
*** College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which had six sub-categories, occupied only four percent of the total health related news. News in the growth · development category included two sub categories and occupied 0.6% of the total news items.

5. In disease prevention and disease treatment category, infectious disease(33.2%)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according to the WHO's international disease classification system. Disease prevention occupied 23.2% and contained eleven sub-categories while disease treatment occupied 14.9% and included ten sub-categories.

Television news coverage on health showed a wide variety of selection in terms that they are reporting various issues. This study, however, found that some news items were confusing and failing in presenting scientific evidences. It is suggested that the television coverage on health could be beneficial to most of viewers in receiving important health information and guidelines, only if they are utilizing their own sound discretion in consuming those news.

Key words : TV news, Health related informations